

헤겔과 그의 哲學(三)

李灌鎔

二. 『헤겔』哲學을 理解하려면 우선 그 先驅者가 남겨둔 哲學的 問題와 『헤겔』이 맞닥터 哲學的 問題를 알 必要가 잇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니다. 『헤겔』의 直接 先驅者 속에는 적어도 『셸링』(一七七五-一八五四)과 『호피테』(一七六二-一八一四)와 『칸트』(一七二四-一八〇四)까지는 算入하여야 하겠슴으로 이들이 남겨둔 哲學的 問題를 여기로 紹介하자면 獨逸 理想主義 哲學의 基本 問題를 敍述하게 되어서 우리가 目的한 課題의 範圍를 넘우 擴大할 餘려가 잇슴으로 우리는 『헤겔』哲學의 概要를 먼저 敍述하면서 必要한 境遇에만 『헤겔』以前 (或以後)哲學에 言及하겠다. 歐羅巴思想發展 史 上에는『啓明時代』란 것이 잇다. 이 時代의 特徵으로서 여러 가지가 잇겠지만 가장 現著한 것은 個人價値의 尊崇이라 하겠다. 各個人에게는 『理性』이란 것이 잇서서 論理的 法則을 規定하고 眞僞와 善惡과 美醜를 判斷하는 能力을 가졌다는 信念이 流行되어서 모든 文化的 價値의 判斷標準을 各個人의 理性에 찾게 되었다. 英國의 『록크』(一六三二-一七〇四)로부터 시작하여 佛國의 『볼테어』(一六九四-一七七六)와 獨逸의 『쉴트』(一六七九-一七五四) 등이 繼承한 이 個人主義哲學이 『칸트』에 이르러서서는 完成되어 버려스니 卽 事物을 認識함에 잇서서 마음은 거울 갖거나 □덩어리 갖티 受動的으로 잇고 事物이 自動的으로 거기 빚최거나 或 自己의 象形을 식어서 認識이 成立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이 自動的으로 自己의 思惟能力에 依하여 事物에서 바든 印象을 一定한 形態로 構成하는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다시 말하면 事物 그것은 思惟能力의 構成的 動作에 依하지 안코는 認識의 對象으로도 될 수 업슴으로 우리 感性에 함브로 빚최인 事物은 悟性(思惟)의 固有□法則에 依하여 처음으로 秩序 整然한 客觀世界가 成立된다고 主張하였다. 그 까닭에 사람이 가진 理性은 文化的 價値를 判斷할 能力만 가진 것이 아니라 自然界를 『生産』하고 또 構成식히는 能力까지 가졌

다는 歸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니 『칸트』가 『自然은 主觀의 産物이다』함은 이것을 아는 것이다. 理性을 批判함에 잇서서 理性 그것만을 現實世界의 모든 事物과 合流되는 關聯에서 分離(抽象)식히어 가지고 그 性□을 規定함은 事物을 그 具體的 形態대로 觀察함은 아니다.

이러한 思想傾向과 □□□法이 헤겔 □에게 와서는 基本的으로 一□되어서 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잇는 革命的 武器는 『헤겔』의 思想□客에 보다 그 觀察의 態도와 方法에 치우쳐질 수 잇스니 우리도 『헤겔』哲學을 研究하고 심흔 動機가 그 哲學의 內容본다도 그 方法을 알고 심흔데 잇는 것이다. 科學이 發展된다 함은 勿論 科學的 智識의 □적□가도 意味하는 것이 겠지만 그러나 嚴格한 뜻으로 말하□ 科學 그것의 發展은 科學的 研究方法의 發展을 意味하는 것이요, 科學 發展 史들 回□ 하드래도 科學의 모든 新 發見과 新 發明은 오즉 新 □法을 因하여 된 것이엇스며 또 各個 科學者의 天才도 □結局은 그 研究方法에 歸하는 것이다.